

제주 내왓당 무신도 10신위(神位) 디자인 형태 분석

Design Style Analysis of Jeju Naewotdang Musindo Folk 10 God's Paintings

강연심*, 박영원**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Younsim Kang(kys0979@hanmail.net)*, Youngwon Park(designhumor@hotmail.com)**

요약

최근 문화 창조산업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 개발은 중요한 실천적 과정이다. 제주도의 설화와 신화 연구는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제주 내왓당 신화의 대상인 무신도(巫神圖) 10신위는 전해오는 제주 무신도 중에 채색화로는 유일하며, 제주도 민속자료 제7호와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엘리야데는 “신화의 상징적 사고의 이미지들은 언어와 추론적 이성애 선형하고, 인간존재와 공존하며 아무렇게나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어떤 필요성과 기능에 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주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역시 타지방과는 달리 우리나라 초기 인류의 사고(감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들의 원형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와 그 상징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우시우스 왕(Wucius Wong)의 디자인이론을 중심으로 시각적 요소, 상관적 요소, 실제적 요소로 구분하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신위들의 재현들을 통해 무신도 기능적인 측면들을 표현해주고 있으며 고대 우리나라 복식과 인류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주신화연구중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적 연구를 진행하여 제주신화의 근원적 연구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형논리를 제공한다.

■ 중심어 : | 제주 내왓당 무신도(巫神圖) | 신화 | 디자인형태분석 |

Abstract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in cultural creativity industry is very practical process recently. Research about Jeju's legend and myth should be the basic theory for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based on local cultures. Jeju Naewotdang Musindo 10 gods paintings are unique colored pictures, appointed as Jeju folklore material No.7 and national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 240. Jeju-Do is remained the springhead of absorbed into unique culture for a long time because of Jeju's geographical environment condition.

Jeju Musindo could be related with the symbol of Jeju's myth images and the springhead of emotions of our typical country people. It would be analysed by Wucius Wong's design style theory for approaching visual image and symbolic meaning. This research about Jeju Naewotdang Musindo 10 gods paintings could provide design analysis methodology for further theoretical studies about Jeju's legend and myth for Jeju's unique cultural contents.

■ keyword : | Jeju Naewotdang Shamanism Picture | Myth | Design Style Analysis | Cultural Contents |

I. 서론

최근 문화창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설화와 신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연구의 부재로 신화에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는 간과하고 간략한 줄거리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제주 내왓당 무신도(巫神圖) 10신위(神位)는 제주도 민속자료 제7호와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 내왓당 당신화(堂神話)의 대상이며 전해오는 제주 무신도 중에 채색화로는 유일하다[7]. 조선시대 세조 12년에 기록은 있으나 내왓당 무신도를 살펴보면 타지방의 무신도와는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연구마다 제주 내왓당 무신도는 특이하고 독특하고 기이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미지 해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하나의 문화가 흡수되면 오랫동안 그 원류가 잔존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형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미지와 상징들의 원형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주 무신도 10신위를 우시우스 왕(Wucius Wong)의 디자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 요소, 상관적 요소, 실제적 요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기능과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제주 내왓당 무신도는 길게는 500년 이상된 것[10]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 조형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과 구성원리를 통해서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내왓당 무신도는 외관 장식만이 아니라 세세한 재현을 통해 의미와 기능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시각적 요소와 함께 상관적 요소와 실제적 요소를 비교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우시우스 왕의 디자인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1. 우시우스 왕의 디자인 이론

우시우스 왕은 시각언어는 디자인 콘셉트 도출의 기

본요소이고 시각적 조직에 관한 원리, 규칙, 또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적 요소, 시각적 요소, 상관적 요소, 실제적 요소로 상호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적 경험으로는 그들을 쉽게 분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4]. 디자인은 각각의 요소와 접하게 될 때 형태 요소들은 디자인의 외형과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내왓당 무신도 역시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디자인형태 분석을 통해 무신도 디자인의 외형과 그 의미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우시우스 왕이 제시한 개념적 요소, 시각적 요소, 상관적 요소, 실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이다.

1.1 개념적 요소

개념적 요소에는 점, 선, 면 그리고 볼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실재하지 않지만 존재가 눈으로 확인된다면 더 이상 이들을 개념적 요소라 부를 수 없다[4]. 점은 선의 시작이자 끝이고, 두 개의 선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지점이다. 선은 길이를 갖고 있지만, 폭이 없으며 위치와 방향을 갖고, 면의 경계를 형성한다[4]. 면은 길이와 폭이 있고, 두께가 없지만 위치와 방향을 갖는다. 볼륨은 공간속에서 위치를 갖으며 평면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생겨난다[4].

1.2 시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는 개념적 요소가 가시적으로 바뀔 때 형상, 크기, 색채, 질감이 나타나는데 시각적 요소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4].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형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지각이 느낄 수 있도록 중요한 특징을 제공한다[4]. 모든 형상의, 크기는 물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형상은 색채 때문에 주위로부터 구별되는데, 색채는 스펙트럼을 통해 나오는 모든 색상과 무채색, 그리고 색조 및 채도변화를 망라한다. 재질감은 형상의 표면적 특징과 관계되는 것으로 평평한 것, 알록달록한 것,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 등 시각은 물론 촉각을 통해서 느껴진다[4].

1.3 상관적 요소

상관적 요소는 형상이 놓인 곳과 상호관계로 방향이

나 위치 그리고 공간과 중력과 관계되는데, 방향은 형상의 방향과 관찰자와의 관계, 형상을 담고 있는 테두리와의 관계, 또는 이웃하는 다른 형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위치는 형상의 테두리 또는 구조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위치가 결정된다[4]. 공간은 꼭 매워지기도 하고 공백으로 남기도 하는데, 평평하기도 하고 착시에 의해서 깊이 감을 나타내기도 한다[4]. 중력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무거움과 가벼움 또는 안정과 불안정의 느낌을 개개의 형상과 형상군의 중력에서 찾을 수 있다[4]. 형태의 상관관계는 분리, 인접, 중첩, 관입, 통합, 감산, 교차, 일치 등 서로 다른 공간적 효과를 생성한다[4].

1.4 실재적 요소

실재적 요소는 디자인의 내용과 범위에 속하며 하나의 형상을 자연이나 또는 인공적 세계로부터 추출하게 될 때, 그것을 재현적 형상이라고 하며, 사실적, 양식적, 또는 반 추상적일 수 있다[4]. 의미는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될 때 의미가 있게 된다. 기능은 디자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할 때 기능이 있게 된다[4].

이상 디자인 형태론에서 4가지 요소 중 개념적 요소는 존재가 눈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이들을 개념적 요소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 상관적 요소, 실재적 요소 3가지 기본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제주 내왓당(堂) 무신도(巫神圖)

무신도(巫神圖)란 무속신앙의 주술적 종교적 행위의 대상으로 샤머니즘(Shamanism)으로 우리나라 토착신앙이라 정의할 수 있다[1]. 샤먼(Shaman)은 통구스어 주술적 종교 자에서 유래되었고 샤머니즘은 구석기 시대 말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원시종교의 한 갈래로 동북아시아 일대에 퍼져있는 보편적인 원시종교이다 [1][2]. 제주도의 신당(神堂)에서는 신앙하는 신들을 그룹으로 그려 모시고 있었고, 무당(샤먼)의 대(代)가 끊기면 무신도도 불태워 없앴으므로 그 중 남아있는 것이 내왓당 무신도 10신위(神位)이다. 12신위가 모셔져 있다가 ‘내외불도마누라’가 단종 내외분으로 추정하여 세조12년(1466년)에 단종의 화상이라고 생각되는 두 내외

신을 소각하게 되어 10신위가 남게 되었고, 내왓당 무신도 10신위는 1466년 이전에 그려진 원본으로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 제주 내왓당 무신도는 1991년 6월 4일에 제주도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11월 30일에 국가 중요민속자료 24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7].

다음은 제주도 신화에서 내왓당 무신도가 있었던 내왓당·궁당과 관련된 당신화(堂神話) 도입부 내용이다 [8].

내왓당은 서문 밖 삼동물가에 있으며 12신위가 좌정하고 있었다. 당의 북쪽에는 세 위(位)가 좌정했으니, 제석천왕마누라·본궁전·어모라원앙남·수령태자마누라이다. 서쪽에는 내외천자또마누라, 오라리에서 내려오신 새금상감찰지방관한집마누라와 서천서역에서 들어오신 상사대왕·중전대부인·정절상군농 그리고 내외불도마누라·자지홍이 아가씨 등 여러 위가 좌정해 있었다. -생략- (이달춘 구송(口誦)).

김병화[1]의 무신도에 관한 회화성 고찰 연구에서 내왓당 무신도들은 1폭에 1신(神)이 표현된 고전적인 형식을 띠고 있으며 진채로서 고전회화양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화상에는 소재와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신이나 영적인 것을 표출하기 위한 표상언어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차원적 표현은 신계(神界)를 현실의 질서를 무너뜨린 초시간성과 초공간성으로 나타낸 평면화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무신도의 조형적 사실성과 환상성(幻想性)에서 환상 속에서 본 신을 인간의 형태로 상징하여 인태(人態)를 그대로 묘사하는데 주력한 단순한 선과 원색과 단선이 기본이 되어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면서도 일종의 초현실적인 환상이 깃들여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채를 금박까지 곁들여 잡귀 및 악귀를 쫓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김유정[2]의 제주 무신도: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연구에서는 남성신위의 도포에서 밑단과 소매단의 곡선흐름을 집안현 고구려벽화 장사도의 뱀을 걸쳐 놓은 형상과 유사하다고 하여 뱀의 형상으로 비유하였다. 상사위(相思位)의 모자 역시 뱀이 파리를 뜯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홍아위(紅兒位)의 머리장식 역시 뱀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 천자위(天子位) 또한 머리 뒤로 방울모양이 연결된 여러 겹의 띠로 장식되어 뱀의 형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의 부정호여 신의 모습[6]과 유사하고 제주도가 뱀을 신처럼 모신다고 알려져 있어 제주 내왕당 무신도 10신위의 의복의 형태를 뱀의 형태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III. 형태 분석

1. 제석위(帝釋位)

표 1. 제석위(帝釋位) 디자인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5mm 화폭, 380mm×54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26 M35 Y89)·홍색(C16 M78 Y99)·녹색(C78 M57 Y82 K21)·벽색(C55 M39 Y29 K0)·흑색(C74 M74 Y82 K53)·백색(C12 M11 Y16)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왼쪽을 바라보는 옆모습,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중앙 공간/ 화폭의 가운데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 울동적, 안정감	
실제적 요소	
재현/ 고깔모자, 가사, 도포, 부채, 규(圭), 새, 4개의 빨간점, 눈, 코, 입, 귀, 소용돌이무늬, 태양 무늬, 구름무늬, 연꽃무늬, 깃 끈, 허리끈, 손, 용화, 帝釋位 글자 의미/ 제석천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제석위 무신도는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며,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붓을 이용하여 그린 채색화이다. 무신도의 형상의 표현은 중첩되어 있으나 머리 부분과 고깔모자 부분이 고깔모자가 투명하게 비치는 듯 관입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오른손의 새끼손가락과 왼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은 손에 든 규(圭)와 관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규의 밑 부분이 도포의 밑단과 중첩되어 있어 규의 오른쪽 상단의 새에서 왼쪽 하단의 도포 밑단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역동성을 나타내면서 힘, 권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중력을 느끼게 한다. 황색 도포와 소매부리단과 밑단이 장 방향으로 중심선에서 무게대

칭을 이루고 있으며, 황색 고깔모자가 중심선 위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사 중간부분에 허리끈을 중심으로 홍색이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며 전체적인 무신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강한 색상대비와 함께 분홍색 띠의 좌우 동세와 도포의 좌우 동세를 홍색의 가사와 그 위로 검은색의 규가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위치화해 주는 사각형 구도이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빛과 습기에 바래어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도포의 소매부리, 밑단부분에는 초록과 연청바탕에 태양과 구름무늬가 선형배열이 되어있고, 분홍색의 띠 부분은 단청무늬를 선으로 표현하여 선형배열을 하고 있다. 홍색 가사(袈裟)에는 사각형의 조각들이 대각선으로 선형배열이 되고 있다. 제석위(帝釋位) 홍색 글자가 왼쪽 상단에 써여져 있다.

2. 본궁위(本宮位)

표 2. 본궁위(本宮位) 디자인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0mm화폭, 345mm×52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25 M34 Y89)·홍색(C24 M78 99)·녹색(C77 M67 Y92 K48)·벽색(C76 M69 Y50 K10)·흑색(C73 M74 Y79 K53)·백색(C13 M12 Y16)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 정면 위치/ 화폭의 약간 위쪽 공간/ 화폭의 위쪽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저고리, 적색 치마, 오리비녀, 화관과 옥구슬, 부채, 문, 코, 입, 얼굴, 6개의 빨간 점, 초록색 황색 부채, 신발, 금박, 本宮位글자 의미/ 본궁전 대부인 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본궁위 무신도의 경우도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붓을 이용하여 그린 채색화로 유기적인 형태로 되어있다. 전체적인 본궁신위는 좌우가 대칭으로 묘사되었으며, 오른 손은 밑으로 퍼져있고, 왼손은 중심 쪽으로 부채를 들고 있는 자세로 좌우대칭에서 벗어나 있다. 눈, 코 입이 대칭이며, 머리화관은 삼각형 배열을 하고 있고 머리장식의 옥구슬은 좌우 대칭을 이루며 선형배열을 하고 있다. 머리화관과 옥구슬 그리고

새 비너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 구름문양이 저고리에서는 선형배열, 치마에서는 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얼굴의 눈, 코, 입, 그리고 빨간 점 6개, 패인 가슴 부분도 중심 세로선에 의해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치마의 허리끈 역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발과 다리, 치마의 실루엣 역시 좌우 대칭이며, 발, 다리는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하고 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대부분 탈색되어 있으며 저고리와 치마가 녹색과 홍색의 보색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화관의 하얀 선과 하얀 얼굴, 하얀 손, 하얀 속바지와 고무신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있고, 유채색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화려함 보다 부드러운 색조를 띄고 있다. 중심부분에 부채를 황색으로 채색하여 강조하고 있다. 분궁위(本宮位) 홍색 글자가 왼쪽 상단에 찍혀져 있다.

3. 원망위(怨望位)

표 3. 원망위(怨望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0mm×630mm화폭, 373mm×53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34 M44 Y76) · 홍색(C18 M70 Y99) · 녹색(C73 M47 Y67 K3) · 벽색(C80 M71 Y42 K3) · 흑색(C80 M77 Y79 K58) · 백색(C21 M20 Y27) 질감/ 한지(韓紙)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약간 위쪽 공간/ 화폭의 위쪽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얼굴, 눈, 코 입, 6개의 빨간 점, 녹색도포, 깃의 끈, 허리끈, 갓, 부채, 용화, 금박, 怨望位글자 의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 원망신 기능/ 종교적 기능	

원망위 무신도도 붓으로 제작한 채색화이다.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다른 신화적 그림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보인다. 도포의 좌우 소매부분이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고 도포 밑단이 좌우로 대칭으로 표현되었다. 화폭 중심에 부채를 든 왼쪽 손등을 중심으로 표현되었으며 무릎의 도포 실루

엣과 머리의 갓 부분이 삼각구도로 이루어져 안정감을 준다. 검정색 갓과 신발인 용화가 왼손의 중심축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깃의 홍색과 벽색 그리고 도포 밑단의 홍색과 벽색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도포의 좌우 소매부분 역시 홍색과 벽색의 배색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색채는 오방색의 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얼굴부분에 있어서도 귀, 눈, 눈썹, 코, 입, 수염, 6개의 빨간 점 등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었고, 부채는 중심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배치로 강조하고 있다. 패턴은 초록 도포에 구름과 태양을 표현한 패턴이 선형 또는 장방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원망위(怨望位) 글자는 없으나 왼쪽 상단에 지워져 붉은 색이 물에 번져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4. 수령위(水靈位)

표 4. 수령위(水靈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5mm화폭, 375mm×53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30 M35 Y63) · 홍색(C27 M80 Y99) · 녹색(C79 M55 Y84 K19) · 벽색(C77 M67 Y52 K10) · 흑색(C77 M75 Y89 K59) · 백색(C16 M15 Y22) 질감/ 한지(韓紙)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옆면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중앙 공간/ 화폭의 가운데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4개 빨간 점, 수염, 녹색도포, 화관, 부채, 금박, 용화, 깃 끈, 허리끈, 태양무늬, 손, 水靈位글자 의미/ 물을 관장하는 수령신 기능/ 종교적 기능	

수령위의 경우도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붓을 이용하여 그린 채색화로 유기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오른손을 중심축으로 하여 화관의 양 끝, 허리끈의 흘림, 그리고 도포의 무릎선 실루엣과 옆모습의 얼굴이지만 입, 수염은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깃 부분은 조류의 털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깃 부분의 끈은 오른쪽만 끈이 밖으로 나와 있다. 화관은 가로선 패턴에 세로선의 소용돌이 패턴을 하였

으며 배열은 선형배열을 하고 있으며 화관의 끈 역시 좌우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녹색 도포의 구름과 태양 패턴은 장방형으로 배열되었고, 홍색으로 형상과 크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색과 흰색으로 반복과 변형이 되고 있다. 중간 도포의 실루엣 표현에서 녹색도포의 보색계열인 홍색과 벽색의 소매부리가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 홍색을 부채로 이어지면서 화관까지 소용돌이 줄기에 채색이 되어 흐른다. 세로 중심축으로 화관, 얼굴, 깃, 깃의 끈, 오른손의 손동작, 허리 끈, 신발인 용화에 이르기까지 세분하여 묘사되었다면 좌우에서는 도포로서 흐름을 중심축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홍색의 소매 단 흐름이 부채 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짙은 홍색의 부채가 강조되고 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었다. 수령위(水靈位) 홍색 글자가 왼쪽상단에 써여져 있다.

5. 천자위(天子位)

표 5. 천자위(天子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0mm×640mm화폭, 375mm×53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25 M32 Y65) · 홍색(C22 M76 Y100) · 녹색(C77 M51 Y74 K11) · 벽색(C79 M72 Y50 K11) · 흑색(C75 M75 Y80 K53) · 백색(C17 M18 Y25) 질감/ 한지(韓紙)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 정면 위치/ 화폭의 중앙 공간/ 화폭의 가운데 공간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6개 빨간 점, 수염, 적색도포, 흑립(갓), 규(圭) 용화, 도포 단, 깃의 끈, 허리끈, 손, 뺨머리 장식, 天子位글자 의미/ 천자또마누라(하늘의 아들 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천자위의 경우도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으로 보이는 붓으로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규(圭)를 들고 있는 왼손을 중심으로 검정색의 갓과 용화가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도포의 전체적인 색상인 홍색과 대각선으로 짙은 규와 왼손 표현이 강력한 중력을 내포하고 있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대부분 중심축으로

갓과 망건, 얼굴, 눈, 코, 입, 수염과 깃 끈과 허리 끈, 규의 끈이 중심축에 위 아래로 흐르고 있고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녹색 끈에는 하나는 한 번의 매듭이 있으나, 또 하나는 두 번의 매듭으로 표현되었다. 다홍색 도포의 소매부리와 깃, 밑단과 허리끈의 녹색이 대칭이 아닌 방사형으로 채색되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도포에 표현된 태양무늬는 마름모형으로 패턴이 이루어졌고, 얼굴 뒷부분에는 동그란 원형과 벽색 링 그리고 회색 링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띠가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에 천자위(天子位) 홍색 글자가 써여져 있다.

6. 감찰위(監察位)

표 6. 감찰위(監察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0mm×630mm화폭, 370mm×555mm화상크기 색채/ 황색(C31 M37 Y71) · 홍색(C31 M72 Y98) · 녹색(C72 M59 Y85 K24) · 벽색(C79 M72 Y50 K11) · 흑색(C76 M76 Y76 K52) · 백색(C20 M20 Y33)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 정면 위치/ 화폭의 중앙 공간/ 화폭의 가운데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6개 빨간 점, 수염, 녹색도포, 사모관대, 흰 고무신(운혜), 깃 끈, 허리끈, 도포 단, 태양무늬, 손, 監察位글자 의미/ 감찰을 하는 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감찰위 무신도는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유기적이며, 붓으로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었으며 화상이 화폭의 위쪽으로 치우쳐져 표현되었다. 검은 사모관대로 인해 중력이 위로 쏠리고 있으며, 왼쪽 손을 중심으로 중심축으로 사모관대 얼굴, 눈, 코, 입, 귀, 6개 빨간 점, 수염과 깃, 깃의 끈, 허리끈이 중심선에서 좌우대칭으로 표현되어 중심부분이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집중시키고 있다. 도포의 무릎선이 좌우로 대칭되어 있으며, 도포의

어깨와 소매부리는 홍색과 벽색으로 대각선상에 있어 위와 아래로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얼굴의 하안색과 목, 깃의 끈, 허리띠의 연한 분홍색, 흰 왼쪽 손, 오른쪽 손과 왼쪽의 속바지와 고무신, 오른쪽의 고무신으로 흐르고 있다. 녹색도포의 등그린 태양무늬가 원형과 함께 불규칙적으로 표현되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감찰위(監察位) 적색 글자가 오른쪽 상단에 씌어져 있다.

7. 상사위(相思位)

표 7. 감찰위(監察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5mm화폭, 368mm×55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27 M35 Y73) · 홍색(C21 M78 Y99) · 녹색(C76 M58 Y81 K25) · 벽색(C79 M72 Y50 K11) · 흑색(C73 M73 Y77 K46) · 백색(C13 M15 Y18)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중앙 공간/ 화폭의 가운데 공간 활용 중력/ 무거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6개 빨간 점, 수염, 적색도포, 전립, 장식끈, 부채, 깃의 끈, 허리끈, 용화, 도포 단, 태양무늬, 손, 相思位글자 의미/ 상사대왕 신 기능/ 종교적 기능	

상사위 무신도의 경우도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며, 붓으로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위아래 공간 여백과 좌우 여백이 비슷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표현되었다. 중심은 부채를 잡고 있는 손등 위쪽으로 전립, 눈, 코, 입, 귀, 6개 빨간 점, 수염, 깃의 끈, 허리띠와 허리끈, 그리고 용화가 중심 세로축에 있으며 허리끈과 용화를 제외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적색도포와 녹색 소매부리, 깃, 밑단이 좌우 대칭적이며 도포의 어깨선이 왼쪽이 올라가 대각선으로 소매 단이 녹색으로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머리에 탕건위로 모자를 착용하였는데 모자의 구슬과 띠가 좌우로 대칭되면서 크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흰색도 모자의 구슬에서 얼굴, 목, 깃의 띠, 왼손과 속웃, 오른손 그리고 용화의

테두리부분으로 흐르고 있다. 홍색 도포에 태양무늬가 장 방향으로 배열이 되었고, 소매와 밑단, 깃의 단 부분은 회오리 구름무늬가 선형배열이 이루어져 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상사위(相思位) 적색 글자가 오른쪽 상단에 씌어져 있다.

8. 중전위(中殿位)

표 8. 중전위(中殿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0mm×630mm화폭, 335mm×545mm크기 색채/ 황색(C31 M40 Y89) · 적색(C33 M87 Y100) · 녹색(C77 M61 Y89 K29) · 벽색(C78 M72 Y58 K20) · 흑색(C77 M78 Y77 K57) · 백색(C17 M18 Y21) 질감/ 한지(韓紙)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약간 위쪽 공간/ 화폭의 위쪽 공간 활용 중력/ 가벼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여섯 개의 빨간 점, 빨간 저고리, 녹색치마, 가채, 호리병과 옥구슬장식, 장식끈, 부채, 손, 깃, 허리끈, 패인 가슴, 신발, 태양무늬, 구름무늬, 손, 中殿位글자 의미/ 중전대부인 신 기능/ 종교적 주술적 기능	

중전위 무신도는 가로 390mm, 세로 635mm의 화폭에 가로 335mm 세로 545mm의 무신 상을 표현하였다. 형태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며, 붓으로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위아래 공간여백을 보면 약간 위로 치우쳐져 있다. 화관은 삼각형 배열로 이루어졌고, 끈에 달린 옥구슬들과 호리병은 선형배열을 하고 있으며, 좌우 비대칭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부채를 든 오른손을 중심으로 화관, 얼굴, 눈, 코, 입, 6개의 빨간 점, 그리고 양쪽 패인 가슴이 중심축에 의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코 선과 양쪽 귀가 약간 서로 어긋나 있다. 허리끈도 대칭을 이루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끈 길어도 길이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 치마는 무릎 선처럼 양쪽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발 부분은 서 있는 듯 표현이 되었다. 유독 왼쪽 손이 크게 부각되어 표현되었다. 색채에서 다홍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가 보색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화관의 흰 선에서 하얀 얼굴, 목, 그리고 양 손과 허리끈, 신발로 흰색 흐름이 있고, 머리 장식인 황색 끈과 구슬, 호리병에서 황색 부채로 흐르고 있어 부채가 강조되고 있다. 홍색 저고리에는 채도가 좀 낮은 색으로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녹색 치마에서는 홍색 태양무늬가 마음모퉁 배열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중전위(中殿位) 적색 글자가 오른쪽 상단에 씌어져 있다.

9. 상군위(相軍位)

표 9. 상군위(相軍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5mm화폭, 330mm×535mm화상크기 색채/ 황색(C30 M76 Y99) · 적색(C31 M73 Y100) · 녹색(C76 M61 Y86 K33) · 청색(C67 M54 Y37) · 흑색(C76 M73 Y82 K52) · 흑색(C16 M18 Y20)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약간 위쪽 공간/ 화폭의 위쪽 공간활용 중력/ 가벼움과 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여섯 개의 빨간 점, 녹색저고리, 다홍치마, 가채, 호리병과 옥구슬장식, 장식끈, 오리비녀, 부채, 손, 깃, 허리끈, 패인 가슴, 신발, 태양무늬, 구름무늬, 손, 相軍位글자 의미/ 정절 상군농 부인 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상군위 무신도도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며, 붓으로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위아래 공간여백을 보면 약간 위로 치우쳐져 있다. 화관은 삼각형 배열로 이루어졌고, 끈에 달린 옥구슬들은 선형배열을 하고 있으며, 좌우 대칭적이나 모양 변화를 주었다. 부채를 든 오른손을 중심으로 화관, 얼굴, 눈, 코, 입, 6개의 빨간 점, 그리고 깃, 양쪽 패인 가슴과 허리끈이 중심축에 의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치마는 무릎 선처럼 양쪽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발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색채에서 홍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가 보색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화관의 흰 선에서 하얀 얼굴, 목, 패인 가슴,

그리고 양 손과 허리끈, 그리고 치마에 표현된 하얀 태양무늬와 신발로 흰색 흐름이 있고, 머리 장식인 황색의 새 비녀와 구슬에서 황색 부채로 흐르고 있으며, 역으로 허리끈의 황색과 소매단부분의 황색에서 부채로 색채 흐름이 있다. 홍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태양패턴은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어 있다. 상군위(相軍位) 전체 글자는 없지만 오른쪽 상단에 위(位)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군위(相軍位) 홍색 글자가 씌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10. 홍아위(紅兒位)

표 10. 홍아위(紅兒位) 디자인 형태분석

시각적 요소	
	형상/ 표 아래 본문 참조 크기/ 395mm×635mm화폭, 315mm×450mm화상크기 색채/ 황색(C30 M44 Y95) · 홍색(C27 M84 Y100) · 녹색(C76 M60 Y86K29) · 벽색(C33 M76 Y56 K22) · 흑색(C78 M78 Y80 K58) · 백색(C16 M18 Y30) 질감/ 한지(장지) 질감
상관적 요소	
방향/ 옆모습얼굴과 몸은 정면 위치/ 화폭의 약간 위쪽 공간/ 화폭의 위쪽 공간활용 중력/ 가벼움과 불안정	
실제적 요소	
재현/ 눈, 코, 입, 귀, 4개의 빨간 점, 노랑저고리, 다홍치마, 가채, 호리병과 옥구슬 장식, 장식끈, 새비녀, 부채, 손, 깃, 허리끈, 패인 가슴, 신발, 태양무늬, 구름무늬, 紅兒位글자 의미/ 자지홍이 아가씨 처녀 신 기능/ 주술적 종교적 기능	

홍아위 무신도의 경우도 유연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자유 곡선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며,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붓을 이용하여 그린 채색화이다. 형태는 중첩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고, 위아래 공간여백을 보면 위쪽으로 치우쳐져 표현이 되어 있다. 화상의 중심은 가슴에 메달아 있는 호리병 밑 부분으로 세로 중심축으로 화관 얼굴, 코, 입, 깃과 끈, 호리병, 허리끈이 표현되었으며 다른 여성 신위들은 대부분 좌우 대칭을 하고 있으나 홍아위는 옆모습으로 허리끈과 패인 가슴부분만 대칭으로 표현되었다. 머리는 화관에서 풀어헤친 모습이며, 머리장식인 옥구슬들이 좌우 흩어

저 있고 새 비너만 화관 뒤쪽으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적색 치마와 황색 저고리에는 구름무늬가 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깃의 끈과 허리끈이 녹색 계열로 채색되어 치마 밑 부분의 속치마부분까지 색채 흐름이 이루어져 있다. 왼쪽 손에 홍색 부채가 표현되어 있어 왼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오른쪽 치마 단을 길게 늘어트리 무게 중심을 맞추었다. 색채는 오방간색으로 색감이 탈색되었다. 홍아위(紅兒位)의 홍색 글자가 오른쪽 상단에 씌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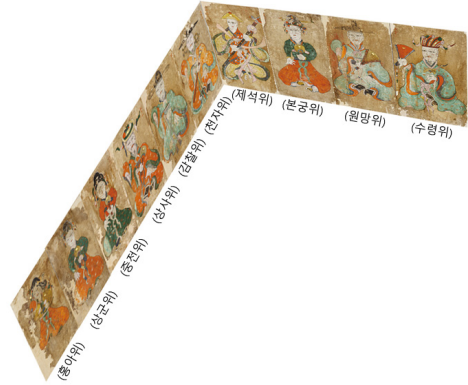


그림 1. 10신위 배치도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디자인 측면에서 제주신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堂)신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제주 내왓당 무신도 10신위를 디자인 형태론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였다. 분석한 결과 내왓당 무신도 10신위는 모계중심사상에서 부계(남성)중심사상으로 전환과정, 우리나라 고대 복식의 형태 변천, 불교의 영향, 고대 초기인류의 조류 숭상, 제주 내왓당의 기능인 불도 신(아이를 낳거나 잘 길러주는 신)과 모성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화폭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 390mm와 세로 640mm에서 ±1이며 화상은 약간씩 크기가 달랐다. 색상은 오방간색인 황, 홍, 벽, 녹, 흑, 백색을 사용하였고 종이는 한지인 장지를 사용하였다. 남성 신위의 경우 여성신위에 비해 화상을 크고 화폭 중심에 잘 표현되어 있고, 도포의 소매부리 단과 밑단을 보색으로 사용하여 역동적이며 강력한 힘을 나타내며, 도포의 넉넉한 폭은 위엄과 기품을 표현한다. 여성 신위의 경우 크기가 작고 화폭 위쪽으로 표현되어 화폭의 밑 부분이 비어 있어 가볍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각 신마다 다양한 실제적 재현요소를 통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무신도 화상 표현에서 남성 신위를 더 크고 안정적으로 표현하여 남성중심사상이 엿보인다.

구전내용에 따라 10신위를 배치해 보면 [그림 1]과 같다[10].

[그림 1]의 10신위 배치도를 보면 형태분석에서 북쪽에 좌정한 4신위가 신(神)의 명칭이 왼쪽 상단에 씌어져 있거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4신위가 북쪽에 좌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6신위의 신의 명칭은 오른쪽 상단에 씌어져 있어 같은 방향으로 좌정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쪽과 서쪽 끝에 좌정해 있는 신들은 옆모습으로 그려져 북쪽과 서쪽의 신들을 서로 바라보는 듯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홍아위의 옆모습은 왼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어 오른쪽을 바라보는 표현을 잘못 그린 것으로 보인다.

신위들의 복식은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는 한복의 형태와는 다른 도포 깃 부분의 끈과 허리끈 두 종류의 끈이 장식처럼 표현되어 있다. 다른 신위들의 깃의 끈 형태와 홍아위의 깃의 끈이 풀려있는 것을 보면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남신의 도포 역시 하나의 큰 폭의 천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뚫고 깃 끈으로 매듭하여 마무리된 듯 보인다. 그리고 헐렁한 품을 허리 끈으로 묶어 정리하는 도포로 하나의 큰 천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은 원시 의복 형태이다. 깃의 끈과 허리끈의 형태는 인도 불교미술에서는 없으며,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서 접하게 되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복식과 도교, 무교인 민간신앙을 흡수하면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고대 의복형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옷에 그려진 패턴을 보면 구름 문양과 단청문양, 회오리 바람문양과 태양 문양이다. 태양을 꽃무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꽃잎이 반쪽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꽃이 아니라 구름문양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한다면 태양 빛을 패턴화 한 것이다[1][2].

여성신위의 머리 장식인 가체에 옥구슬과 호리병, 새비녀가 장식되어 있고 가슴이 패어져 있다. 본래 내왓당은 불도 신으로 어린애를 낳거나 잘 크도록 비는 곳이라는 본래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여성의 다산성과 모성적인 능력과 연관되는 표현들로 보인다. 당(堂)의 본래의 기능을 여성 신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모계사회 이후 남성 신이 덧붙여지면서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과 감찰관을 신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무신도 10신위의 손동작들과 깃 끈과 허리끈을 살펴보면 조류의 날개와 깃털과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화가의 미숙함을 들었지만[1], 우리나라 조상인 중국 동역계의 조류숭상과 관련한 신화 변천과정에서의 잔류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얼굴에 표현된 빨간 점들이다. 6개의 점을 살펴보면 귀, 코의 구멍과 눈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귀 위쪽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입 역시 빨간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 역시 구멍으로 생명과 관련된 내부와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을 빨간 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무속에서 빨간색이 생(生)을 상징한다는 것과는 일치한다.

부체는 무구(巫具)로 좋은 기운은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은 내보내는 상모적 표현에서神通력을 나타내기 위해 금박의 부적을 붙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주 내왓당 무신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무신도의 디자인형태에서는 타 지역의 무신도와 시대적으로 다르며, 고대 우리나라 복식과 고대 인류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방식은 우리나라 전통 진채기법과 제석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유입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라는 지역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대의 무교적인 행태들이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제주 내왓당 무신도는 우리나라 초기 인류의 사고(감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들의 원형과도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 제주 내왓당

무신도가 당신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화와 비교연구 및 제주 특유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김병화, *무신도에 관한 회화성 고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논문, 1987.
- [2]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巫神圖) :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pp.183-214, 1997.
- [3]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 2013.
- [4] 우시우스 텡 지음, 최길철 옮김,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1994
- [5] 이창식, “설문대할망 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학회*, 제30권, pp.7-45, 2012.
- [6] 예태일, 전발평 지음, 서경호, 김영지 역, *산해경 [山海經]*, 안티쿠스, 2008.
- [7] 정진희, “제주도와 유구(琉球), 충승(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탐라문화*, 제37호, pp.91-125, 2010.
- [8]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바다, 땅 그리고 사람*, 2012
- [9]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10]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저 자 소 개

강 연 심(Younsim Kang)

정회원



- 1996년 8월 : 홍익대학교 산미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포장디자인 전공(미술학석사)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경영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0년 3월 ~ 현재 : 제주관광대학교 디자인경영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브랜드, 신화, 기호학, 문화콘텐츠, 시각 커뮤니케이션

박 영 원(Young-Won Park)

종신회원



- 1982년 2월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전공(미술학사)
- 1986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과정 광고디자인 전공(미술학석사)
- 1988년 12월 :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미술학석사)

- 2001년 8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시각디자인전공(미술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시각디자인학회 회장,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관심분야> : 광고, 시각커뮤니케이션, 기호학, 디자인유머, 문화콘텐츠